

【붙임 서식3】 활동보고서

# 북토피아 \_\_\_\_회 활동보고서

제출일 : 2020. .

작성자 :

동아리 운영정보			
동아리명	PPT 활용 대화형 토론	지도교수	(인)
모임일시		모임장소	
참석자			
불참석자			
오늘의 독서 토론			
도서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자 역할을 한 돼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li> <li>- 나를 책 속 동물들 중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떤 동물에 속할까?</li> <li>- 권력자의 타락을 막기 위한 방법은?</li> <li>- 만약 스노우볼이 정치를 했다면?</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내용(사진 포함)</li> </ul> OT 진행, 책 '감시와 처벌' 토론 / 토론 진행자 : A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오리엔테이션</div>		
	<h2>2. 활동 계획</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주 금 - 오전10시 / 일 - 오후1시 (Zoom)</li> <li>➡ 권력자들의 부정부패 /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농장</li> <li>-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li> <li>- 예루살렘의 아이히만</li> <li>- 세 책을 읽은 후 (통합적 주제, 생각 변화)</li> </ul> </li> </ul>		

## 토론 주제

### 1. 지도자 역할을 한 돼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도부 돼지들에 대한 나의 생각
- 비판 / 옹호(공감)
- 전보다 상황이 낫다면
- 지금의 부패는 용서될 수 있는가?(이유)
- 돼지들은 왜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는가?
- 권력을 잡고도 초심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특정 돼지에 대한 나의 의견 등

### 2. 내가 만약 책 속 상황에서 동물들 중 하나였다면 어떤 동물과 닮아 있을까?

- 동물 캐릭터 분석
-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행동 했을 것인가 등

인간을 정복하더라도  
인간의 악습을 배워서  
안 된다.

어떤 동물이든  
같은 동물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형제, 평등

메이저

**반란 : 우리 노동의 산물은 우리의 것!**

## 책 소개

우리가 노동을 해서  
생산한 것을  
전부 인간들이 빼앗는다.

인간은 생산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유일한 동물

우유, 계란, 망아지

메이저

**반란 : 우리 노동의 산물은 우리의 것!**

- 책 소감 발표

① B 학우

이 책은 인간을 동물보다 더 가볍고 모자란 존재로 표현하고, 주로 동물들을 사건의 중심으로 만들어 작중 분위기를 익살스럽게 만들었다. (중략) 작가는 시민의 자유가 기득권층에 의해 억압된다면 평등의 이념이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그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나폴레옹의 신격화였다.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모든 동물의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떠올랐다. 북한의 정권과 자신만을 따르는 개 9마리를 이끄는 나폴레옹의 정권이 딱히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혁명의 변질이 책 속의 동물들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② C 학우

사회문제를 동물 이야기에 녹여서 잘 나타냈다고 생각한다. ‘권력’은 사회의 모든 운동체가 관리의 측면에서 합의하에 지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것인데 동물들마저도 권력을 손에 쥐자 타락한 것을 보니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국민은 개 돼지다’라는 발언이 생각나기도 했다.

(후략)

③ D 학우

(생략) 권력 이동 과정과 돼지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다른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과거 소련체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 인간의 삶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꼈다. 회사라는 농장안에서 살아가는 직장인, 특히 사회 초년생을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회사에는 엄격한 위계질서, 즉 계급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이러한 체제 내에서는 손에 권력을 쥔 계층들이 자신의 입맛대로 경영을 해도 사회 초년생은 대체로 방관을 선택하기 마련이다.

(생략) 나는 동물농장의 이야기를 현대 인간들에 빗대어 보면서, 지배자의 독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피지배자들의 수용적인 태도 또한 문제점이라 생각하였다. 자유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배자 간 권력싸움과 사익을 위한 행동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행동에 제재를 가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E 학우

우화 소설로 인간들의 모습을 빗대어 보여준 것이 인상 깊었다.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욕심이 끝없이 늘어나는 것과 닮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책의 출판연도는 1945년으로 소련의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책이라고 한다. 책의 전개 과정이 러시아 혁명 과정과 닮아있고, 돼지의 이름도 ‘나폴레옹’이다.

책 속 이기심은 현대 사회 인간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처음에는 다들 모두가 공평함을 외치지만 자유를 경험하게 된 후에는 이것을 나만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도 들뿐더러 내가 조금 더 가져도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게 자신의 혜택을 늘리고 자신의 능력을 권력을 잡는데 이용한다. 글을 읽는 능력은 처음에는 장점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동물들을 선동하는 무기가 된다. 돼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들이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게 책의 복선이 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후략)

- 지도자 역할을 한 돼지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① E 학우

잘못되었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스노우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나폴레옹의 악행에 물렸지만 그도 역시 우유나 사과를 지도부들이 독점하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지도부 돼지들은 글을 읽을 줄 알고 똑똑하다는 점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 이는 본래 반란을 일으킨 의도와 맞지 않다. 능력을 과시하고 그것을 통해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 능력이 있다면 사회 속 역할 분담에 사용하여야 하고 혜택은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

(후략)

② C 학우

옹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는 어떤 경우에서든 용서할 수 없다. 돼지들은 반란을 일으킨 목적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편한 것을 추구해 동물들에게 자신의 몫의 노동을 대신시키는 인간들처럼 돼지도 똑같이 변한 것 같다. 지배 계층인 돼지들은 사회 구성원과 꾸준히 소통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또한 나폴레옹 주변에서 나폴레옹을 대변했던 스킨라가 권력자의 목소리보다는 다른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p>③ D 학우</p> <p>비관적인 입장이다. 일단, 돼지들 모두 독재 권력에 맞서고자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고, 분명히 이들이 처음에 원한 것은 자유와 평등이었다. 이러한 의미가 돼지들에 의해 퇴색되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어버린 돼지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좋게 바라볼 수 없다. 특히, 자신의 권력을 위해 동물들을 이용하기만 한 나폴레옹은 용서받을 수 없는 캐릭터이다. (후략)</p> <p>④ B 학우</p> <p>돼지들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돼지들이 영리하게 자신들의 자리와 역할을 차지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란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하며 활발한 활동과 연구, 회의를 통해 뛰어난 지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동물 사회가 열린 데에는 지략가였던 돼지들의 공이 컸다. (중략)</p> <p>자유를 위해 일어난 혁명에서 당연히 자유와 평등은 지켜져야 한다. 목적성과 그 본질을 잃게 된다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껍질만 남은 쪽정이라 생각한다. (중략)</p> <p>또한 돼지들의 무자비한 권력 남용을 막으려면 다른 동물들도 그에 걸맞은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식인인 벤자민이 돼지들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더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것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활동 계획</li> </ul>
<p>지도교수 종합의견</p>	